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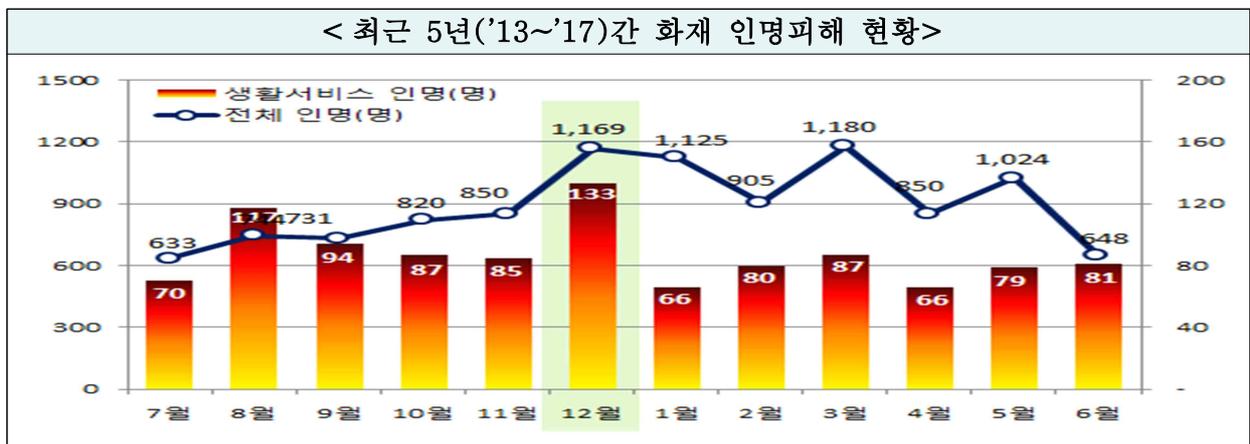
	<h2>보 도 자 료</h2>	작성과	예 방 안 전 과
 <p>행정안전부</p>	<p>2018년 12월 7일(금) 조간 (12. 6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지만석 주무관 오영남
		연락처	044-205-4510 044-205-4521

송년 모임,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!

- 주간(12.9. ~ 12.15.) 안전사고 예보 -
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할 것을 요청하였다.
-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('13~'17)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5,093건이며, 10,679명(사망 1,536명, 부상 9,143명)이 사망하거나 다쳤다.
 -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,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다.
 - 특히,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,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*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.

* 생활서비스 시설: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, 피시(PC)방, 음식점, 커피전문점, 호프집 등(화재통계연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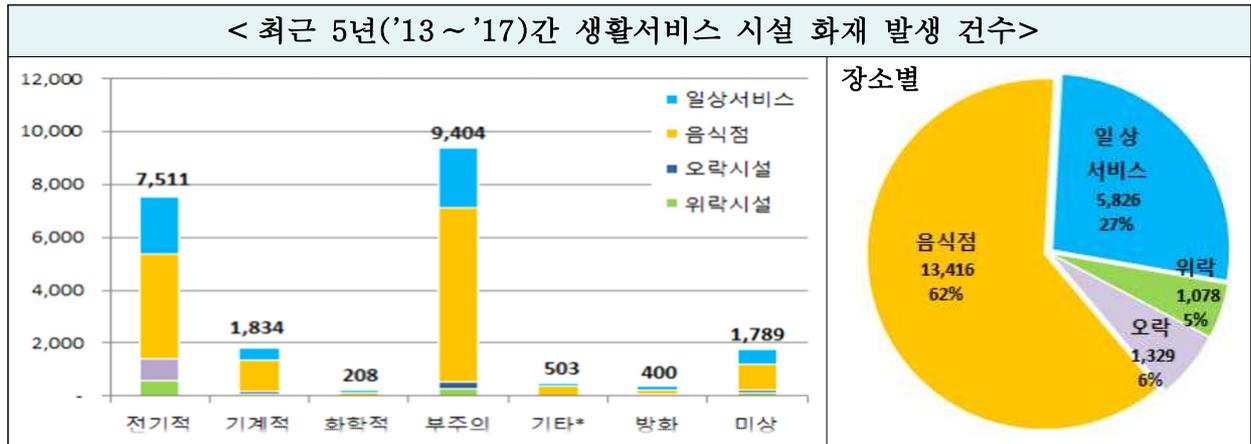


[출처 : 소방청 화재통계연감]

-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3,416건(62%)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,826건(27%), 오락시설*이 1,329건(6%), 위락 시설** (1,078건, 5%) 순이다.

* 오락시설 : 노래연습장, 전화방, 게임제공업 등

** 위락시설 :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카지노업소 등



※ 기타 : 화학적, 가스누출(폭발), 방화 관련 등

[출처 : 소방청 화재통계연감]

-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꽂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,404건(43%)으로 가장 많고,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(7,511건, 35%)이 뒤를 이었다.

- '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*'에 의하면 불이 나고,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.

*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
(한국방재학회논문집, 제14권 5호, 2014년 10월)

-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.
- 또한,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, 주변의 소화기 등을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. 이 때 불길의 거세어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한다.

-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,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.
-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면,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다.
-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“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국민행동요령
화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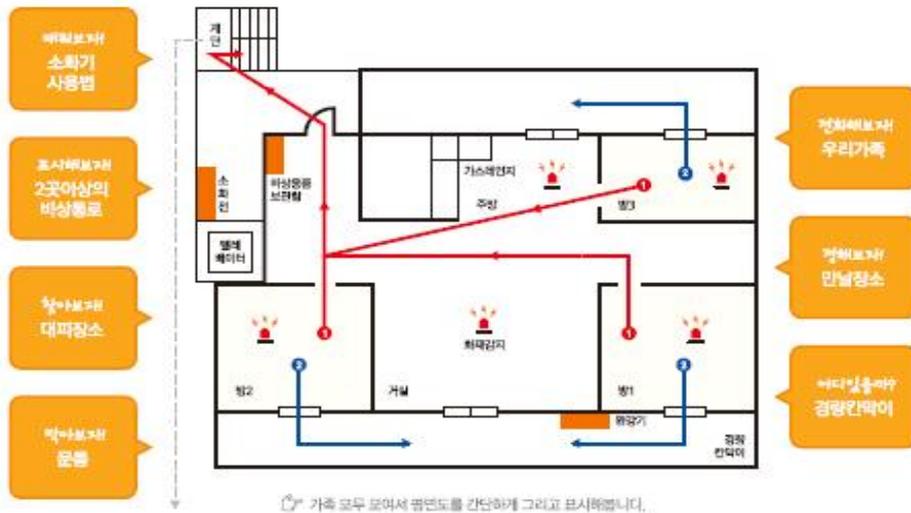
화재대비

■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과 대피훈련을 해야 합니다.

1 사전점검

- | | | | | |
|---|---|--|--|---|
| <p>눈으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 확인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 확인 | <p>귀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벨소리 나지 않던 이상한 소리 확인 | <p>코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는 냄새 확인 | <p>손으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제보거나 무릎거 보거나 | <p>행동으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. 난방기구 등 전열기구 사용시 주변에 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. |
|---|---|--|--|---|

2 대피훈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신속히 움직인다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

챙겨야 할 내용 Tip

-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 사전약속
-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물건 목록작성과 행질 시험 선정
-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연락처야 할 대상 선정
- 문틈을 막아야 할 경우 천대이크 또는 수건
- 외부 대피시 사용할 수건 등 대피에 사용할 물건
- 긴급 대피할 경우 만년 장소의 비상연락망
- 옥상층입구는 항상 열려있는지,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방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.

화재대처

■ 화재 경보가 울릴 때



1 비상소집을 합니다.

- 지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뚫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피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.



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.

-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붙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.
-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.



3 신속히 대피합니다.

-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.
-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.



4 119로 신고합니다.

-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.
-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.



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.

- 놀이대 등 사정에 익숙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.
-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.

화재대처

■ 불을 발견했을 때

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

-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**불이야** 라고 소리치거나 **피상벨**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.



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.

-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.
-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.
- 세디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,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.



☞ 1992년 10월 이전의 67법이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가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■ 알아두시دة 완강기 사용법



완강기 용 합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.

1.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.
2.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밑(줄)을 연진다.
3. 완강기 볼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.
4.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.

화재진압

■ 소화기 사용법



실내에서 사용할 때는
밖으로 대피 할 때를
대비하여 문을 등지고

1. 소화기를 가져와서 동봉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.
2.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.
3. 손잡이를 꼭 움켜쥐는다.
4.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.

■ 소화전 사용법



2인 1조로
사용할 경우

1.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
2. 호스를 밖으로 끄지 않도록 물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(관청)을 잡고 방수지세를 취한다.
3.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뒤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.
4.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.

■ 옷에 불이 붙었을 때



얼굴 화상방지
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
않도록

1.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
2. 얼굴(눈, 코, 입)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.
3. 바닥에 엎드린 후
4.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.

소방관이 전하는 안전상식

■ 119 신고절차

본인의 위치(주소) ▶ 현재상황 ▶ 부상여부 ▶ 상황요원 안내에 따라 행동



일반전화

- 1 수화기를 들어 발신을 확인
- 2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
- 3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



휴대전화

- 1 119 숫자 누르기
- 2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



인터넷

- 1 인터넷 접속
- 2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
- 3 설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
- 4 시고개요 정확히 기록
- 5 등록여부 확인



공중전화

- 1 수화기 들기
- 2 긴급버튼(좌측) 누르기
- 3 119 숫자 누르기
- 4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

■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

대류현상에 따라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.



1 손수건, 옷 등을 이용하여 코를 막고(코와 입) 호흡한다



2 자세를 낮춘다



3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



4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

■ 4분의 기적, 심폐소생술

심폐소생술은 최우선 응급처치 4단계 중 1단계입니다.



1 의식 및 호흡확인



2 119 신고 및 AED 요청



3 가슴 압박 30회



4 인공호흡 2회

■ 알아들시다! 은연중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



재연설비



화재진지기



스프링클러



주방용자동소화기